

요한·칼빈의一生

背景

宋 昌 根

칼빈은 큰사람이였습니다. 우리基督教人의게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 칼빈이였습니다. 그때는 한창 羅馬法
 王의 등살이 원 天下에 두루 퍼져 그 힘을 당하고 그 權勢를 어찌는 사람이 없는 때이였습니다. 羅馬法
 王이 無法王으로 天下에 노를칠을하게되니 그앞에는 科學에도 아무 自由가 없으며 哲學에도 아무 自由가 없
 으며 더군다나 宗教는 순종만한 自由도 없고 그 커 공을 팔이라하고 소공성을 불수로 되리고올라하
 여도 法王의 말이하면 그것이 法이 되고 禮가 되고 眞理가 되며 世上이 그대로 살아야 될줄 알든 엄청나게
 잘못된 時節이 칼빈이 世上에 남다시기 바로前後의 時代相이였습니다. 그러니깐 생각이 있고 바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써 어쩔수없이 그대로 산다는것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悅服이 거기에 있었을까닭은 없
 는것이였습니다. 옛날부터 오늘 우리사는 世上에서까지 우리가 같이않게 보는것이 即 생각이있고 자라나
 가는 사람, 生命이있는사람을 갖다가 機械同様の 取扱을 하라다가 想外의 失敗를 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歐洲에는 새政治運動 새經濟運動 새思想運動이 猛烈한 氣勢로 이러나게 되니 그것은 即 法王의
 無法王 노름에 怒한 大衆의 反逆運動으로써의 兇事였읍니다. 勿論 政治뿐만 아니였습니다. 法王의게 늘
 름을 當하고 앞된것을 겪는 一般이 다더드렸으니 爲先 宗教는 禁慾主義에서 無批判主義에서 法王御用主
 義에서 人生的 價値와 自由를 發展을 꾀하는 새運動을 일으키니 일운바 改革運動이 었읍니다. 범보다
 더 무서운 法王廳을 등지고 社會의正義와 宗教의良心을 爲하야 외세게 차우다가 마출내는 強壓的敎權에
 장혀가치고 죽고하였으니 그가운데 오늘까지 우리의 記憶에 새롭고 節介가있고 산민음에 웅척이는 젊은

이들의 마음을 衝動시키는 것은 위를임스나 요한허스같은 놀라운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無所有主義를 唱道하는 동시에 聖書의 中心主義를 말하여 義人は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信仰萬能主義를 力說하며 打倒羅馬法王 九十五箇條를 廢止한 敎會堂大門에 갔다. 결어놓고 法王을 廢이 가 뒤 새끼 노려보듯이 緊보든 말든 루터가 큰소리치자 그高喊소리가 震天下에 떨치니 獨逸은 勿論이고 英國

瑞西 홀랜드 헝가리에까지 改革主義의 信仰이 퍼져 各各 그 나라 사람들의 生活를 指導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두고 죽이고 할지라도 사람의 思想을 가두고 죽이는 법이 예로부터 오를까지 없는지라 오히려 敎權의 強壓的 橫暴가 더하면 더할수록 改革運動의 뜨거운 불꽃은 더욱 猛烈한 氣勢로 天下를 덮게 되니 여기서 正義는 最後의 勝利라는 眞理를 가장 分明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악 하나님의 公道를爲한 큰運動이니 아무리 되지 말라고 해도 안될리가 없지만 이運動으로 하여금 繼續的으로 번다 서게하고 이運動이 있음으로써 政治와 經濟, 社會, 宗教, 一般人類文化에 큰功績을 쌓게한 것은 이運動을 指導한 人物들이 偉大한 이들이었기 때문임을 누구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위를임스나 요한·허스나 말틴·루터를 잊지 못하는 동시에 偉大한 우리 칼빈을 알만해도 못있는 것입니다. 회를임스 요한·허스나 루터와 같은 분에는 피를 흘려 改革運動의 주추들을 놓았다 할진대 칼빈은 先輩와 同志들의 뒤아 놓는 러우에다가 改革運動을 完成한 人物로써 우리는 언케든지 우르려보는 것입니다.

準備

一五〇九年 七月十日은 우리基督教 歷史에 있어서 좀처럼 못있는 날이었습니다. 不幸히 人格과 信仰에 組織과 訓練을 生命으로 여이지 않았거나 宗教의 道德的 訓練과 敎養을 等閑히 하였든들 아무리 먼커간 사람들이 러닥은 것들이 있었다기로 그것으로외 決코 큰일을 칠오지 못하였을 것을 잘 아는 우리는 더욱 큰날로 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一五〇九年 七月十日에 칼빈은 佛蘭西國都 피리城東北쪽으로 있는 피칼드洲 노온城에서 呱呱의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時節에는 代代로 노앗스江가에서 배부리는 나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代에 잊어서는 노온城에 큰집을 짓고 그 아버지 제를칼빈(Gerard Cantin)은 원학 獨立의精神이 강한 사람으로써 公證人、區裁判所檢査、司教及 貴族院書記의 소임을 지난터에 몹시 부스럼하고 組織의技能의 장한 사람이요 特히 記憶力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城內에서 뜻사람의게 尊敬을 받는 가장 敬虔한 婦인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칼빈도 한참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않았고 學校에서 工夫할때에 그날에배운 科目은 因종 다 외따루 읽었다니 그무치운 記憶力과 特히 組織的天品은 아버지의게서 받은 性格上遺産일것이며 그의 宗教的으로 남달은 敬虔한 生活을 몸소 實踐한것같은것은 그어머니의 感化라고 말할수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規模가있고 整齊한 아버지와 敬虔한 어머니의 獨特한 家庭教育을 받고 차차 나이 차서 그地方에 有力者요 貴族으로서 이름있는 몬트모어집 子女들과 같이 初等教育을 받은後에는 故郷을떠나 文化의서을 파리로 向하야갔습니다. 파리로 갈때에도 亦是 몬트모어집 子弟들과 같이가서말쉬(College de Marche)大學에 入學하야 남달은 才質을가지고 가장뛰어나는 業績을 學友나 教師들의게 떨치는中에 別히 先生님가운데 팔류氏는 칼빈의 非凡한才質과 性格에 보논배가있어서 自己의 全誠力을 바치며서 그를 指導하였는것입니다. 氏가 칼빈을 特別히 指導한것은 勿論 칼빈은 後日에 큰일을할 가음됨을 보았는것이요 또한 自己의 품은뜻을 칼빈같은 큰사람을 通해서만 땅위에 實現할수있다는 點에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팔류氏는 當代의 一流教育家요 特히 改革運動의 남달은 信仰과抱負를 품었는 先生으로서 學生들의게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가지고 指導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世上에 있을때에 佛蘭西 말을 라틴말에서 解放하야 獨立을 시킨 國學의 權威者로서 칼빈은이 先生께로부터 改革主義의 思想과 아울러 國文法의 指導를 받았는 것입니다. 後日에 칼빈이 제네바에 大學을 創設할때 第一代教授로서 팔류氏를 招請하야 그로써 大學을 이끌어 하였었습니다. 그는 칼빈이죽은後 四個月만에 八十五歲의 高齡으로 큰일을임우고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칼빈의 몬리크(Montaigne)大學에 轉學하였었습니다. 이 몬大學으로 말하면 그때 그時節의 파리에있는 大學으로서는 이름이 높은터에 有名한 사람들까지 그學校를 거치지 않은사람이 없었습니다. 그大學에는 칼빈이 들어가기前부터 레베벨이란 改革主義의 先驅者가 있었었습니다.

그는當代 일종있는 人文學者요 또 맨 처음에 바울書簡의 註解를 쓴 聖書學者였읍니다. 레메벨氏는 매우 하나
 님의 말슴의 至上權威와 信仰으로써 義를 다함을 얻는 眞理를 主張하며 禮典의 魔術的効果와 聖職者의 獨
 身을 否定하여 改革思想을 積極의으로 宣傳하였읍니다. 一五一六年에는 舊敎會의 祈禱文을 反對하며 日
 라마리아나 라사로의 누의 마리아나 聖母마리아나 같이 罪人됨을 言明하여 終乃是 몬大學에서 쪼끼게 되며
 그는 남은歲月을 新舊約聖書 佛譯에 從事하여 一五二八年에 비로소 큰일을 일웠읍니다. 그러나 宗教裁判의
 判決註文대로 그의大成은 異端의 名目으로 禁制를 當하였읍니다. 그렇게物議가 높아갈수록 레메벨氏의名
 聲과 人格的感化는 와리와 소나라에 퍼지게되니 自然히 따르는사람들도 하나이나 물이아니였는데 그중에
 는 異常하게도 後日에 칼빈과 가장 親近하게지낸 同勞者파렐(Parell)氏가 끼웠는것입니다.

學校에 在學하는중에 敎授와 同輩들 가운데 솜솜치않은 사람들과 齟齬를 짓게되었으니 원악 正義感이강
 한 칼빈으로서는 어쩔수없이 改革運動의 大王이되고만 것임니다. 實相인즉 칼빈은 大學을 마친後에 神學
 을 專攻하기로 하였었으나 그아버지가 故郷에있는 司敎와 수를러차우고 自己의敎職을 집어던지고 나야와
 서 아야 自己조차 敎會運動에 加擔하면서 아들은 法律工夫 사키기로 決定하고 勸한것임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法律工夫하는것이 自己의 將來事業에 반드시 어떤힘이 될줄믿고 올러안(Olseran)大學에 入學하여
 工夫하는중에 그는 漸漸 큰 그릇으로서의 기를을 이루웠다고함니다. 그때 가르치든 敎授 가운데 러푸렌
 (Lutens)과 같은분은 칼빈의 學生時代를가라쳐 그는學者的 營시가있고 特別히 말갈하는 솜씨가있고 그리
 고 宗教的이었다고함니다. 그때부러도 同輩間에라도 잘못된일이 있을때에는 不義를叱責하는 버릇이 强
 하였다고함니다. 하면서도 一方 學生과 敎師 새에 非常한 勤勉과 精勵를보여 寵愛를 받았고 一般社會
 人士들에게까지 人望이었다고 일컫는것임니다.

칼빈은 法律을 工夫하는 學生이지만 種種 敎授를 代身하여 學生을 가라쳤으며 그外에 信仰에 難關을
 當한 사람은 거이가 칼빈에게와서 相談하는것이 常例었다고함니다. 올大學에서 工夫하는 칼빈은 좀더 學
 的研究를 거듭하기爲하여 이췌에는 벨커스(Belker)大學에 옮겼읍니다. 부大學에는 多幸히 그때 루터敎派
 에서 名價높은 볼미(Wolme)氏를 接하여 칼빈은 前보다 더聖書를 研究하며 루터의著書를 愛讀하게되는데
 同時に 불敎授가 同大學에 同敎授였는것만치 칼빈은 同敎授의手下에서 古語研究에 全心力을 기울렸읍

니다. 그래서 後日 칼빈은 自己의 손으로된 고린도後書 註解를 불미教授에게 드리는 紀念著作으로 하였다 고합니다.

칼빈은 瞬間의 放心이없이 精進하는때에 그의 아버지는 世上을 떠났읍니다. 얼마나한 슬픔이있었읍니까 큰 슬픔을 겪는동안에 칼빈의 마음에 다른생각이 드러왔읍니다. 그것은 몇때까지 法律을 專攻하던 칼빈이 오늘後로는 文學研究에 沒頭하게 된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칼빈이 스물네살되던 한창 젊었을때입니다 무어나하면 남달리 잘하는 칼빈은 特히 고리와 라틴文學에 精通했읍니다. 해서 세네가의 溫和論註解를외서 初等學校 同窓되는 몬트모어에게 주는데가 곧 칼빈의 文學世界에서 날개를 펴는데인줄 압니다. 칼빈이 文學世界에 나선것도 亦是 그키이름바 文學을 爲한 文學을 배울라는것이 勿論 아니었읍니다. 거기에 도 숨은 큰마음을 이루겠다는 그 큰目的에 方便으로외 한것입니다. 그래서 亦是 文學專攻하는데에도 宗教的 努力은 더욱 컸는것입니다.

그가 詩篇註解序文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爲하야 法律을 배우고 나를기쁘게하기爲하야 文學을 배웠으나 하나님의 攝理의 손은 인케든지 나를 떠나게시지 않은때문에 나를 法王敎의 迷信의 世界에서 불러내어 새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였읍니다. 칼빈의 私生活을 도라다볼때에 칼빈은 勿論 이고 第三者로서도 하나님의 恩寵의信仰. 預定的思想이 생겨나지 않을수없읍니다. 그렇기때문의 칼빈의 信仰과 思想은 가장 必然의이요 自然스럽게 보이는것입니다.

始 役

지금부터 칼빈은 좀더 分明하게 世上에 그 陳容을 배치우는데이되다. 一五三三年가을諸聖徒祭日이자 自己의 敬愛하는 親舊 칸(Cord)氏의 파리大學總長 就任을 하는때인때 이때에 칸氏의 就任演說 草案 꾸민 사람이 칼빈이엇읍니다. 가장 銳利한 筆鋒으로외 徹頭徹尾 福音主義 立場에서서 自己의 信仰과 處世道를 公開하게되자 파리에는 一大波瀾이 捲起하야 議會는 即時로 칸氏逮捕令을 發하고 칸氏의 「목을칼러」바치

는 사람에게서 三百兩을 賞金을 준다든가 하야 決局은 火刑에 處하기로 하였읍니다. 일이야아 틀러지니까 칼씨는 僻處地方으로 逃亡을 하고 칼빈도 亦是 그 뒤를 이어 逃亡을 하여 英格蘭의 (Anglem) 있는 親舊 윌러의 집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讀書과 著述에 時日을 보내는 一便 時間을 얻는대로 近方 洞窟속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聖經을 풀어서 眞理를 가르켜 주며 聖餐禮를 행하며 偉大한 感激을 모이는 사람들에게 마다 주었읍니다. 그때는 노라니 외리에서는 칼씨亂으로 因하야 많은 信仰同志들이 國王의 殘忍한 處刑을 당하여 한꺼번에 三十二人의 殉教者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야단이었읍니다. 그때 主人였던 自己親舊 윌러氏를 데리고 마늘버 故國을 떠나 스트로즈법을 經由하여 僻處地方에 다다르니 그때가 一五三五年이었읍니다.

칼빈은 뜻있고 쓸데있는 同志들이 無慘히 죽어가고 改革派안에는 그랑게 植한 團結도 없고 既成舊敎의 迫害는 날로 甚해가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思想으로나 實際적으로나 混亂과 紛亂中에 있는 改革派에게 組織과 統一을 주고 同時에 कै틀의 羅馬敎會와 當時에 盛行하던 人文主義의 손에서 純粹한 基督教을 건져낼 양으로 基督教歷史의 劃時期的 大著을 써서 世上이 이른바 칼빈의 『基督教原理』가 그것입니다. 칼빈의 一生의 力作이오 칼빈이 죽은 經典이외다. 그內容을 펴쳐보면 하나님, 예수, 聖神, 敎會에 關한 敎訓입니다. 칼빈은 이 大著을 世上에 보내는 것으로서 一躍 改革運動의 巨人이 되는 方便으로 不幸히 身弱의 苦痛이 甚하였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칼빈은 暫間 伊太利로 가서 그때 그나라에서 公爵地位에 있는 페라리氏의 집에 손님이 되었읍니다. 그婦人 린에(Renee)는 篤信의 基督教人으로서 特別히 改革派에게 두렵은 同情을 하는 라이드로 칼빈에게 厚待를 하였읍니다. 거기서 칼빈은 여러가지 有利한 일을 많이 하는 중에 特別히 信仰問題에 關한 貴重한 便紙들이 쓴 것이 特筆할 事實이었읍니다.

제네바의 칼빈

그러나 그好事도 칼빈에게는 오래지 못하였읍니다. 그대 거기 다시 佛蘭西로 갔다가 僻處地方에 가서 繼續하야 工夫算計를 하고 떠나가는데 戰爭때문에 길이막혀서 어쩔수없이 瑞西를 通過하게 되어 케네바에서

하로밤을 자게되었읍니다. 偶然한機會로 前 自己의 尊敬하던 先生 레벨氏門下에서 가치배운 파엘氏를 만나게되었읍니다. 그때 파氏는 케네바에서 信仰同志를 糾合해가지고 尙 恒한 運動을 繼續한關係上 인커는 全市가 新敎派의 市가되다싶이 되었으나 또한便으로는 反對의 勢力이 强하야 조금만 잘못하면 平하고 문화질 危殆危殆한 境遇를 當하고 苦心하는때이었는데 「基督敎原理著」者인 칼빈이 케네바에 드러왔다 는말을듣고 두두쳐어 그의 宿所에왔읍니다. 파엘氏는 꼭 이것이 하나님^의 攝理요 祝福인줄알고 칼빈터 러 萬事를 當바닥에 내어던지고 케네바를 救援하여주기를 懇請하였읍니다. 이때에 칼빈은 겨우 二十七歲의 青年이오 파엘氏는 五十에가까운 中老人이었는데 칼빈을 꼭 하나님^이보낸 使者로알고 哀願하였든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變通이적고 規則의인 칼빈은 自己의計劃을 守이지 않을려고하야 拒絕하였읍니다. 그때에 파엘氏는 大怒하야 그때가 自己의뜻만세우고 하나님^의뜻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니 내가 全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宣言하노니 그때가 케네바에있어서 우리와같이 하나님^의事業을 도움지 않을진대 하나님^이罰을 내리우시리라고 激越한 말을하였읍니다. 칼빈도 여기에서는 守이지 않을수없서 마침내 케네바에 머물기로 許諾하였었으니 그때가 一五三六년이엇읍니다.

칼빈의 가슴에는 큰불덩이가 떠러졌읍니다. 全身全靈은 뜨거운 感激과 遠大한 願望에 라버릴것 같았읍니다. 인제는 죽든지 살든지 眞理를爲하야 차움마당에 나선판이니 무엇이무침고 두려워서 할말을 못하거나 할말을 못할것인고 파엘老友와 一心同體로 生死를 主를爲하야 같이하는 가운데 케네바의 改革事業은 거이 完成의領域에 達하였읍니다. 그해가음에 羅馬敎會의 代表者들과 맞다드러 是非를 가리는판에 칼빈은 돌같이굳은 沈黙을 지키고 앉았다가도한番 입을 열어 眞理를 辯護할때에는 相對便은 뒤죽은듯이 말 못하고 마렸다고합니다. 한갓 칼빈의 말솜씨를 자랑하는것으로 通快한일이 될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 結果에 舊敎의勢力은 一掃해버리고 改革敎會의 새로운 精神이 全市民을 支配하게 되었읍니다. 그때 케네바의 宗教的狀態는 말뚝된 形便이었읍니다.

칼빈이 옛날 自己故鄉 노온城에 있을때에도 舊敎의 사람들이 우리城은 天下의 第一가는 거룩한都城이라고 誇張하는것을 보았읍니다. 말하자면 우리城에는 洗禮요한의 머리가락一部分이 있다. 沙漠에서 주운 옛날 이스라엘百姓이 주어먹든 만나몇개가 있다. 예수께서 五千사람먹이다 남은 부스러기 주운것 몇개

가 있다. 예수님의 어급니한대가 우리에게 있느니라 하여 無智한 民衆을 홀여먹는 것입니다。舊敎의 司敎들의 이런듯된行事에 골들렸든 갈빈의호으로서 이케네비를 보느라면 僧侶들이 妾을 몇個씩하고 私生子는 해일 수 없고 民衆의財産을 强奪해서는 落蕩浮華의 用道에 消費해버리고 아니 白晝 大道上에서 다니는 婦女子를 붙잡아다가 修道院에 監禁하고 不法한일을 함부로 行할때에 警官이 窓壁을 깨뜨리고 뛰어들어가 볼 상한 婦女子들을 奪回하는活劇까지 種種있든라이니正義의 눈을가진 갈빈으로써 어찌 그저 참을수있었겠습니 까。여기서 갈빈은 敎會뿐아니라 全市民에게 信仰關係와 敎理問答、宗教制度를 비롯하여 道德의으로 社會的으로 그民衆을 敎養할새 처음에는 極히 穩健한 方法을 取하였으나 元來 오랜歲月을두고 舊敎의 惡德에 무커진 因習이 있는지라 終乃 快히 드리키지않을때에 갈빈은 그民衆과 所謂指導者格에 있는 議員들까지도 咀呪받은것을 言明하였읍니다。그리하여 갈빈은 市民에게 미움을사고 議員들의 反感에 물니워 와 열과함께 市外에 放追함을 當하였다고 합니다。그때에 갈빈은 膽大히 말하기를 얼마던지 쫓아라 우리가 萬一에 사람의 종이였다면 부끄러운 일일는지도몰나 하나 우리는 主님을 받드는 主님의 종이니 主께서 착한 報應주실줄 믿노라하고 발에몬지를 걸고 손을 씻은다음에 케네바를 하직하고 亡命의 길을 떠났읍니다。

放 逐

갈빈이 伊太利로부터 佛蘭西를 向하고 도라가는길에 돌넙길을 케네바에 들너 하로밤만 자고가자는것을 抑志로 못커잡는 파엘은 갈빈이오기前에 自己호자서 길을가다가도 나무나 石塊로 講壇을 삼고가는데마다 이르는데마다 市場을 敎會堂으로 녀이고 僧侶를 攻擊하는것이 일이었읍니다。그러니까 僧侶들은 누구가 惡魔같은 너놈에게 說敎許可를 주더냐 質問하여 迫害를 했었읍니다。그럴때마다 파엘氏는 對答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聖神의일홍으로 洗禮를받고 예수께서는 내罪를 爲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復活까지 하셨으니 나는 惡魔의 子息이아니요 하나님과 아들이니라。누구든지 그를믿으면 救援이臨하고 믿지않는자는 亡하리

라 나는 그의 아들이요 使者니 너는 드를지이다 엘니아 아합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와 너하아버지들이라』 할같이 傳說과 人間的工作과 腐敗한 生活을 가지고 世上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하들이라 하고 高喊을 치곤 했다 합니다. 이러듯 熱烈한 言葉은 칼빈을 마져 한참 동안 主님의 敎會를 옮겨 받들더니 하나님 뜻의 將次 어떻게 이루어질지 決定인지는 모르나 인제는 붓드라드렸든 칼빈과 더불어서 亡命의 길을 떠나 스트라스부르로 向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위튼베르를 모르며 쾰른의 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어찌 쾰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어찌 쾰른바를 모를 수 있겠소 宗教改革史에서 빛나는 地域이 쾰른이나 쾰른이나 위튼베르이라 할 터이면 스트라스부르는 改革者들의 亡命地로 마져 헤치지 않을 수 없는 都城이 외다.

獨逸에 붙은 地方이요 쾰른바에 接近해 있는 都城으로 여기는 佛蘭西와 其他各나라 福音主義派의 避難地였읍니다. 여기에는 徹底한 改革主義者들만이 모여든 生新한 都城이었읍니다. 여기서 칼빈은 極히 苦生스러운 生活을 보내엿읍니다. 自己가 가졌는 書冊을 다 팔아서 같이 있는 後輩들을 먹여주고 임혀주는 일을 하였읍니다. 집세를 버지 못해서 놈의 빚에 쫓기는 生活을 하면서도 一方敎會를 組織하고 敎人들을 福音主義에 根據하여 眞實의 敎養하며 禮拜儀式을 새로 決定하고 詩篇을 作曲하여 敎會禮拜에 使用케 하였으며 神學校敎師의 職을 맡아 가르치는 同時에 間斷없이 聖書講解를 힘써왔읍니다. 이 동안에 비로소 로마書註釋을 著作하고 名著 『基督敎原理』 第二版을 發行하였읍니다.

거기서 칼빈은 自己에게 있는 것을 팔아 없는 同志들을 먹이고 임히는 仁情다운 일을 힘쓰는 중에 멜랑히톤 같은 어른들과 믿음의 交際를 繼續하여 남다른 友情을 가지엿읍니다. 멜랑히톤氏가 作故한 뒤에 칼빈은 『至今은 하나님앞에 나아가서 至極平和로운 중에 나를 기대리시는 멜랑히톤氏여 나는 매양 몸과 맘에 當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이며 이제 나를 붙들고서 敬愛하는 멜랑히톤氏와 같이 가장 幸福스러운 世上을 보게 해주소서 하고 祈禱하노라』고 어떤 著書中에 記錄하였읍니다. 멜랑히톤氏뿐 아니라 말틴루터와도 이때에 가장 깊은 交際가 있었읍니다. 어느 때에 루터로부터 信箋이 오는 가운데 『敬愛하시니 칼빈氏여 나는 당신의 著書를 읽는 중에 큰 恩惠가 있음읍니다』 하는 紙 높은 敬意를 表하는 句節이 있었읍니다. 그 후에 칼빈은 사람이 木石이 아닌 다 음에야 눈물이 없이 이러한 便紙를 읽을 수 있을 가하고 感激하였다고 합니다.

遠近의先輩와同志들과 좀더 창되고 뜨거운交際가 있고 自己스사로 萬難을 해치고 나아가면서 實은修養은眞實노 드문收穫이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스토라스뵈에서의 三年동안에 칼빈은結婚하였읍니다. 特히老友 피델氏와같은분은 칼빈氏의게 때없이結婚을勸했었다고합니다. 그리해서 一五四〇年 二月에 이드레트·데·베유라는篤信의未亡人과結婚하였읍니다. 그는頭腦와心情이 남없이 優越하고 靜肅하고 溫順하며 確實한信仰과 獻身的愛情이 豊富한婦人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그賢妻와 九年을同居하고 不幸히別世한後에 피델氏의게 便紙로 일하는말이 내안하는世上에 있을때에 特別히 艱難한사람을 찾아보고 외로운사람을慰勞하며 失望中에있는사람을 북돋워주며 모든것에있어서 그는 내生活에 가장좋은伴侶者이었고 나에게 가장큰同勞者이며서改革運動과 나를爲해서 불몰을가리지않은 내안하였다고記述하였읍니다. 이런것으로 보면 그는世上아아는 한것무엇은사람만이 아니요 눈물이있고 뜨거운仁情이있는先生이였는것을 볼수있읍니다.歲月이 빠른지라 於焉間에 三年時節은 지났읍니다 말이 三年이란동안에 그의몸과 마음으로 겪은 어려운情至를 말할양이면 끝이 나지않을것입니다. 스토라스뵈에 와서는 이렇게 지나가 동안에 칼빈과 피델 두指導者를 내어쫓은 케네바는 그間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알아봅시다.

칼빈을放逐한 케네바는 그後에 宗教的으로 社會的으로 政治로 거이 無政府狀態에 도라앉읍니다. 칼빈을 따르는同志들도 若干남아있었으나 케네바위로서는 자빠져가는 그社會를 바꾸삼을길이 조곰도없었읍니다. 文字그대로 牧者를 잃은 羊의무리가 그때 거기大衆들이었읍니다. 教會는 舊敎의 毒手에결려 거의烟滅되어버렸고 社會는 亂倫의世上이되고 多小남아있든改革派 사람들이 種種 칼빈의게 悲慘한至情을 말할뿐이었읍니다. 할때에 칼빈은『親愛하는 벗들이여 人間의 勢力으로써는 우리의結合을破壞하지 못할것입니다. 그까닭은 하나넌째서 그의經綸을爲하야 우리를結合케하신줄 確信하는데문외이다. 우리를反對하는사람들이 많은非難을加하고 우리의分離를圖謀한다 하더라도 나는 언케든지 그대들의 칼빈인것을變케할 사람 없는것을言明하오』한것을 보와서 그네들 새에信仰과愛의結合이 얼마나 強하였으며 一步를 나아가서成事의 큰秘訣이 창되고 強한基督敎友情에 있었는것을疑心할나위가 없읍니다.

이렇다시 強한友情의 勢力이 終乃는 칼빈으로 하여곰 三年지난 一五四一年 가을에다시 케네바사람이 되

게 하고야 마릅니다. 남은 同志들은勿論 市民과 議員들도 四年前케네바와 至今에 亡해가는 케네바를 比較해보고서는 어쩔수없이 凱旋을 再迎하여야할것을 깨달은것입니다. 그리하여 亡命客으로 몰려서 쫓겨왔지마는 지금에는 威儀堂堂하게 騎兵隊의 先導로 마치 凱旋將軍같지 入城하였읍니다. 하지만 一便 스토라스법에서는 좀처럼 凱旋을 노치지않을양으로 보내라거나 望보내졌더니하야 彼此에 凱旋爭奪戰이 생긴셈이었읍니다. 그렇나 凱旋은 오래 祈禱한結果 主님의 對答이 케네바에 도라가는데 있음을 믿고 다시 간것입니다. 인제 以後二十三年歲月을 케네바에서 지난 凱旋을 가라치 하낙敎授는 말하기를 처음에는 凱旋이 케네바의 凱旋으로 오드니 後에는 케네바가 凱旋의 케네바가 되었다고했습니다. 이簡單한 語句를 통해서 그의 業績을 아려마칠수가 있는것입니다.

凱旋의 케네바

네바에 凱旋이케 도라오뒤에는 敎會는 單純한初代政治와 嚴格한 規律를 再現하기로 最高理想을삼고 爲先聖書에 絶對한權威를 두는 長老政治를 樹立하지않을것같은 敎會의敎職을 遂行할 재주가 없음을 斷言하고 몬키 長老選舉의 規定을 制定하였읍니다. 敎會의役員은 牧師、敎師、長老、執事、四級에分하야 其中牧師는 가장 重要な 地位를 차지하게하고 敎師는 神學校 或 大學敎授에 相當하고 長老는 敎會의政治를 主管하고 執事는 慈善事業에 全力하게 하였읍니다. 凱旋은 宗教上信仰問題뿐 아니라 道德的 政治的改革도 斷行하였스니 말하자면 敎會가 곳 그社會와 民族生活의 뚜렷한 良心이되지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해서 二萬에 가까운 市民으로하여금 내가거룩하니 너하도 거룩하여라는 主님말씀 그대로 거룩한 生活를 實現하게 訓練하였읍니다. 簡單한 問答書를 맨드려 市民의 子女들게 改革主義信仰을 가르치고 舊敎人은 市民權은 姑捨하고 아야그市에서의 居住權을빼앗읍니다. 그리고 그市民의 生活를 統御하기爲하야는 牧師五人과 長老十二人으로써 評議會를 組織하야 市를 다스리는 市의實際上最高機關을 삼았읍니다. 그最高機關에서 飲酒、舞踏、賭博、奢侈、俗된노래등을 嚴禁하였읍니다. 惡疫이 流行할때에 占치고긋한 男女占쟁이 巫蠱들을

한가함에 二十人以上火刑에 處하였으며 一五四二年으로 불어 一五四六年間에 死刑當한者 五十八人이요 追放當한者 七十六人이라고 합니다. 其他談話를 할부로 부른다가 說數를 들고 옷다가 禁綱에 處한사람은 얼마 父母를 때리고 목나려난 젊은이는 얼마였습니까. 敎會안에서 敎人들을 비롯하여 一般市民으로 하여금 爲先結婚을 할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읍니다. 年齡에 있어도 六十歲男子가 自己年齡의 折半以下의 女子와 結婚 못하는 법이요 四十歲以上의 女子로써 적어도 卅五歲以下의 男子와 結婚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勿論 어떤名譽나 金權慾이 動機되여가지고 하는婚姻은 絶對禁止하였읍니다. 그렇게해서 婚姻은 가장 거룩한 宗教的 行爲인것을 가라앉읍니다. 葬儀式은 極히單純하게 鄭重하게 하여 誇張的行動을 嚴禁하였읍니다. 그뿐아니라 後世에 功績을 자랑하라는 墓碑같은것은 絶對 못하게 하였읍니다. 衣服에 對해서는 貴金屬寶石類를 全然禁하였읍니다. 下層社會人으로써 비단 가죽으로 만든 衣服을 못입고 男子가 머리를 차례우지 못하고 女子가 너머齊修하게 머리를 異常야릇하게 못맨들고 가락지는 上流社會婦人에게 許한個使用을 許하되 但 結婚하는 그날에만 使用하기로하고 너머 지나치는 色衣를 禁하는中에 赤色은 絶對 못입게 하였읍니다.

앞가슴을 드러내놓든지 소매를 너머 짧게하든지 할부로 新型衣類를 穿드려내는 사람에게는 重刑을加하였읍니다. 食事に 있어서도 制限이있었읍니다. 艱難한사람으로써 肉類鳥肉麵類를 먹지 못하는거요 손님請하도 普通十人 婚姻할 때에는 下流人에게 十人 中流人에게 二十人 上流人에게 三十人以上은 未請하도록 하였읍니다. 집에서 下人을부리더라도 男僕六人 女婢六人以上 부리지 못하게하고 高價의리본을 쓴다든지 高貴한花環같은것을 주고 받는것을 如何한 境遇에든지 禁하였읍니다. 이와같이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生活를通해서 宗敎的精神을 培養하였읍니다. 實生活를 떠나서 칼빈의信仰을 알재주가 없읍니다. 칼빈이라고 믿음으로 救援하는 眞理를 믿지않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組織을하고 敎養함으로써 健全한 個人과 社會生活를 建設한것이 칼빈이즘의 獨特한 異彩라고 말할수있는것입니다. 칼빈이즘의 자랑거리인 敎養을通한 調化와 統一이라고 말할수있는것이아니와 特別히 聖書研究에關하여 한마디 말치않을수없읍니다. 그가 生前에얼마나 많은著書를 내였는가 어의生覺해봅시다. 스코틀랜드에서 發行한 宗教改革家全集 五十九卷中 二十三卷以下 三十六卷은 全部가 칼빈의聖書解釋인것을 보와서 집작할수있읍니다. 三十六卷中 舊約에서 사사記에스

더 傳道書를 除하고는 舊約全部요 新約에서는 默示錄三章까지 註解를내고서 三章以下는 모른것다고 고만둔 것임니다. 모도合하야 菊版으로 二萬여지 大著을 내었스니 그얼마나 偉大한 業績임닛가 그렇한가답에 米國斯스런神學校敎授로 敎會史에 世界的權威을 가진 韋平氏가 루터를 가라쳐 聖書翻譯의 王이라할진대 米빈은 聖書註釋의 王이라고 讚嘆하짚다 한것이 決코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聖書註釋 以外에 拾卷以上の 書簡集이있고 有名한 基督教原理가 있으니 絕倫의 精力을 누구나놓나지않을수가 있음니까? 그때 米비바市民에게 譯아니라 그이가 있은後 오늘까지 거이 五百年동안에 온世界人에게 社會的으로 宗教的으로 政治로 其他人類文化의 各方面에 빛인感化 特히 全人類의 生活原理를 闡明確立한것으로 불진대實로 大恩人이라 안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그의神學에 特異한豫定說은 決코 한마디나 두마디말로 외울바뜻되지만 그것은 다른것 이아니라 하나넘은 萬有의 主權으로외 一切을 支配하고 攝理하시는 恩寵의 아버지되심을 믿는 믿음이와다. 우리의 救援을 얻는것도 하나넘의뜻이요 敎授못얻는것도 하나넘의뜻이란것을 確信하는것임니다. 勿論豫定思想이 한갓 理論으로만 서들을때에는 當然 自由意志의 否定論도생기고 人間努力의 無用論도 생길는지모르나 칼빈의豫定說은 所謂說이아니오 하나넘의 無限大의 恩寵에 感激한 가장 뜨거운信仰을 가슴에 지닌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實際에있어서 必然的으로 到達하는 結論임니다. 그렇기때문에 칼빈의 豫定說은 理論을 內容으로한 한갓 神學이아니오 主에스그리스도의 十字架의 信仰의 뜨거운體驗이준 信仰임니다. 그런故로 豫定神學이라기보다 豫定信仰이란便이 더 옳고 바름알읍니다.

終焉

칼빈의 晩年은 比較的 平和스런 時期라고 말할수있읍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改革主義의 同志들 때문의 慨望 아팠는것임니다. 그러나 自己自身을 爲해서는 조금도 애수히여기는것이 없었읍니다. 醫師의게 보낸 칼빈의書信에依하면 胃病, 肺病, 神經衰弱의 症勢가甚하였고 게다가 中風, 喘息, 疝氣, 痔疾가各病이

發生하여 그肉身은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럴때 오히려 칼빈은 내가 이목송이 끊어지기전에 著述의完成을爲하여 盡力하겠다고 決心하고 病弱의 몸으로數年間에「基督敎原理」를 改訂하고 이사야書註釋의校訂. 모세五書의 라틴語及 佛語註解. 요시아書講解. 詩篇註解. 佛譯. 에리미아記及 예레미야哀歌講解四福音書 註解佛譯을 完成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 自身의 漸漸히 病弱해질때에는 일곱을 하늘로向하고「아! 主님여 어느때까지임나까」하고 禱禱를 돌렸다고합니다. 一五六四年三月廿四일에 侍從하는사람과같이 評議會에 出席하여 마즈막 告別을하고 도라올때에는 인종場內가 눈물에 어리우고 울음소리에 흔들렸다고합니다. 그해 四月二日 復活主日に 最後로 禮拜堂에 나아가서 聖餐에參與하여 敎友들과같이 讚頌을 부를때에 그의 얼굴에는 喜色이 滿面하였다고합니다.

四月二十四日에는 最後의 遺言狀을 寫게쓰는中 그二節에「나는 眞理를爲하여 對敵과 論爭하는中에 아무리한 欺瞞도없었고 邪惡한 詭辯의術策도 쓰지않았다. 할수있는데까지 가장 公平하게 眞理를 擁護하라고하였을뿐이다. 하지만 나의 誠意와 熱心이란것은 너머나 輕率하였고 鈍하였던것을 슬퍼하지 않을수없다」고告白하였습니다. 마즈막 물려받은 몇親舊의게 부되 自己의缺點을 容恕해주시기를 懇請함으로써 自己의謙讓의德을 나타내었습니다.

매양 祈禱, 聖經, 暗誦으로써 病苦의날을 지나다가 一五六四年 五月二十七日 初여름 夕陽이 西山에 떠러지랴할때에 偉大한 칼빈, 改革敎會의 創始者요 人類全體의 生活原理의提言者 칼빈은 五十四年 十個月十七日을 이世上에서 보내고 主님앞으로 도라왔습니다.

全市民이 인종 堆러나서 死後 第二日에 그遺骸는 땅이 꺼질듯이 山河가 움직일것같은 케네바全市民의 숲음과 눈물속에서 共同墓地에 나아가 땅속에 埋葬하고 遺言에依하여 墓碑없는 작은무덤을 만들었습니다. (續)

一九三四年六月十五日 山亭峴에서